

문화재청,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위해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2023. 7. 26.

문화재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 20년간 풍수해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건수는 총 979건으로, 특히 작년 9월 태풍 힌남노에 이어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전국 목조 문화유산 927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6건(25.4%)에서 흰개미 등으로 인한 생물피해를 확인하고 긴급조치를 한 바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경험하지 못한 태풍·호우·산불 등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가치보호'라는 비전 아래 3개의 전략과 6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략은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로, 국가유산의 기후변화 피해 데이터 정보체계 및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과학적 분석·예측·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유산의 기후위기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기후탄력 체계 구현'이다. 이 전략에서는 문화유산·자연유산의 집중 모니터링, 문화유산의 위험관리 고도화 및 자연유산의 다양성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국가유산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세 번째 전략은 '국가유산의 촘촘한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으로, 대형 재난재해나 흰개미 방제 등 공동 대응체계를 활성화하고, 현장 밀착형 기후위기 상시 예방관리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확보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관리하고자 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주 서악동 고분군'(사적) 유실 모습 올여 집중호우로 인한 '공주 공산성'(사적) 만하루 침수 모습
출처: 문화재청. (2023).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7월 26일 보도자료.